

고은 불교대하소설

아수라의 어느날

우 너는 단식 2일이 지나자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밤을 가리켜 '박박'으로 최란한 것이다.

말을 안해서 들어와 주는 괴도소리나 그밖의 세소리 따위 비 오는 소리 따위가 없거나 고마웠던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다시 한번 무욕도가 척척한 심정을 알게 해주었다.

무욕도는 오랜 무언도였으므로 이렇다 할 집중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청성모나 다람쥐 따위 두더지 따위의 곤충알고는 까사 쉼에 깨어나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

지 없었지요... 어릴 때부터 나는 역마상이 깨어 잠들지 않아도 별일 없어서 살아야 할 아이라 하였지요...

이런 허무로 시작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 이야기는 천상계의 그것과도 같은 것이어서 남자 우너는 그의 부질기적인 정신이상상태가 없어진 정상상태에서는 기이한 느낌까지 들었던 것이다.

사망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한동안 바라보지만 해도 교감이 되어 바로 깊은 사유에 빠져 환몽경에 들게 된다.

이이를 낚아 거리에 버려두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을 한번씩 뻗은 1주일만에 어른으로 부활 자라버린다.

대소변을 볼 때는 팔이 갈라졌다가 그 입을 마치면 팔이 아물어버린다. 누워있고 싶으면 하루내내 앉아있을 수 있다.

그 뿐인가. 생각만으로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이 착각 해결된다. 죽어도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영원이 지속되는 이런 낙원일 뿐이다.

그런데 그 젊은 길손은 그런 생각이 나았을 때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지옥, 무위(無爲)지옥이라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너는 그 길손을 마음 속에서 사모하였다. 사망하고 싶었다. 아니 그 이야기대로 그런 생각만으로도 교감이 되기를 바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길손이 말하기를 '남자도 나처럼 멀리 떠나 때가 있을 것이오... 지금의 고된 일을 조금만 잘 견디시오... 그리

하였다.

어렵고 어려운 것은 참 버리거나 참 버려 다하면 밝은 구슬 빛나라 (難難難定難難難 佛道難得難難難)

이런 노래도 곧 연한 것이었 던가. 우

"지정? 지정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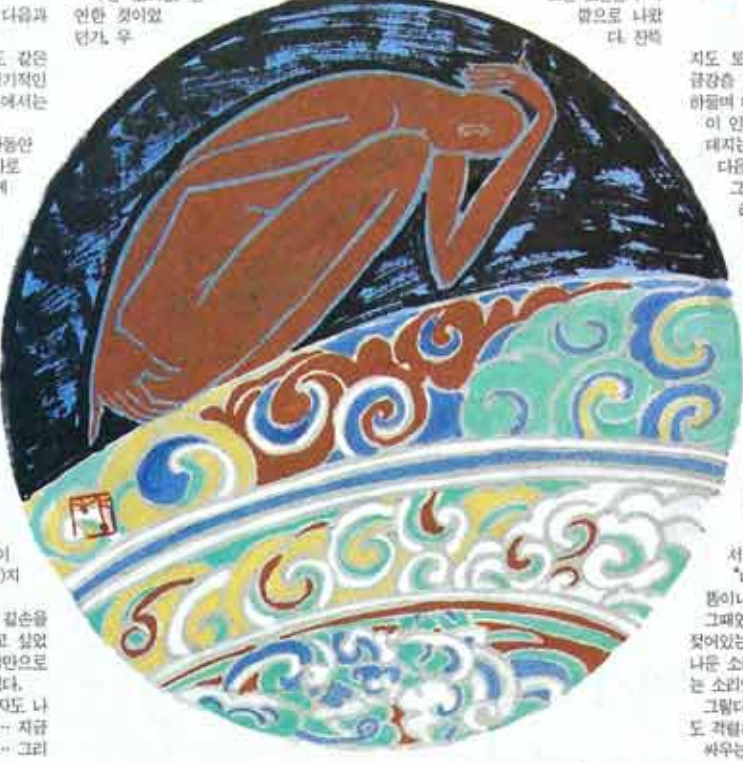
아니었다. 그 공! 소리는 일정한 사이를 두고 한나절 내내 울었다. 그러다가 한동안 뜸 그쳤다. 그러다가 다시 울리는 것이었다.

"아아! 무욕도 밑에 지옥이 있는 것인가. 무언인가."

그는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왔다. 전복

"그동안 들려온 소리조차 내 업보였던가"

우너는 예성강시절 길손의 말을...



지도 토층(土層) 석층, 금사층(金沙層), 금강층 등으로 단단한 이루어져 있는데 하늘에 바다 밑이라...

이 인간과 축생들이 함께 사는 삼부주 대지는 우선 토층이라 하더라도 진흙 다음으로 한 흙, 그 다음은 붉은 흙, 그 아래로 노란 흙이 층층으로 내려가 있다. 그런 뒤 푸른 흙의 지층이 나온다.

바로 이 푸른 흙 지층을 더 내려가면 거기에 지옥 여덟개의 엄청난 크기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 여덟개의 지옥이 바로 8형(八處) 8형(八處)로 나누어져 이 세계에서 가장 극한의 고통을 겪어야 할 땅이 되는 세계이다.

무욕도는 오직 괴도소리 밖에 없다. 만일인지 갈매기들도 다른 곳으로 건너가고 없었다. 이 땅에 남겨놓은 그것들의 하얀 털들이 말라 붙어있을 뿐이다.

우너는 그 동물들 찾게 바위에 서 뜰어보았다.

"나도 이들을 떠나면서 이런 미련들이나 잊게 남겨놓고 싶었다." 그러했다. 모처럼 아리따운 감회에 젖어있는데 괴도소리를 누르고 아주 사나운 소리가 울었다. 그것은 분명히 싸우는 소리였다.

그렇다면 공 안에서 들린 공! 소리도 격렬하게 싸우는 소리였던 것일까. 싸우는 소리는 성에서 나는 소리가 아



"무욕도 밑에 지옥이... 용궁에서도 중생놀음 이로군"

많은 갈매기 들이 울었다. 소리가 없어진 세상이 되었다.

"그동안 들려온 소리조차 내 업보였던가."

그는 문득 지난 날 예성강 하류 벽란도의 한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 지나가는 길손에게 들은 얘기가 떠올랐다.

그 길고 큰 눈을 가진 대자광의 젊은 길손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어디에 꼭꼭 숨어있다가 이제야 그 길손의 모습이 떠오른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이 있었다.

"이 세상에는 할 일이 없어서 살만 하지요. 아가씨께서도 구경을 버리는 일을 너무 싫어하지만 마시지요.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도 떠도는 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 몇번이나 밤이 부르고 무릎 꿇어서 아버지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앉아있을 때는 정녕 답답하기 그

고 주안인 남자를 비참년이라고 자주 욕하더라도 미친년이라 아니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란 말한다고 여기시오... 배사를 거꾸로 여겨 이 괴로움이 곧 기쁨임을... 세상의 즐거움이 곧 괴로움을 가만히 알고 있기 바라오."

그 젊은 길손은 한말 한 바가지와 집안에서 버려진 찢긴 한 켤레를 받은 일에 감사하며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섬의 암굴에서조차 아무 소리도 못들은 귀가 된 것도 그런 무위지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불에 실려 불린 쌀을 아주 조금씩 예순번도 더 넣게 하고 넣어 붉은 생미를 만들어 남겼다. 3-7일. 그러니까 21일의 단식을 마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흘마다 쌀의 양을 조금씩 늘어서 힘겨워 하였다. 그러자 울리지 않던 괴도소리가 어렴풋이 울리기 시작

하는 세로 울리기 시작하는 이 세상의 소리에 사뭇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옛날의 선사 화신(和信)이 '동동동동...'이라고 말한 경지인가.

어느 남자가 불기를 '무엇이 참되게 지나가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복소리 사냥이었던가. 다시 불기를 '무엇이 부처의 참된 가르침인가?'에 대한 복소리였던가. 또 불어도 그 복소리 뿐이 아니었던가. 또 불어도 또 불어도 다만 '동동동동...'이었다.

옛날 선사 경칭(鏡聲)이 한 남자에게 묻는 바가 '밖에 무슨 소리인가?'였다.

대답은 '빛깔을 소리입니다' 였다.

이런 소리의 수작들이야 지금 우너의 마음 속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암굴의 어딘가에서 '공!공!' 하는 아득한 소리가 울리는 것이었다.

흐린 날이었다. 하늘 가늘어 언뜻은 여자들이 마음이 가득 달여있는 것 같았다.

린데도 우너의 눈에는 그 바깥이 눈부셨다. 바다 위의 거룩거룩한 괴도지옥조차도 눈부신 것이었다.

물론 그런 암굴 밖에서는 공!공!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흐린 날에만은 수평선은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암굴 뒤편 쪽으로 쪽 그어놓은 것처럼 뚜렷하였다. 바로 밤 아래로 달려온 듯한 그런 가까운 명도성이었다.

우너는 어딘가에도 되어보지 않았다.

"저 바다 밑에는 용궁이 있었지... 그 용궁에는 용왕이 그 축복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 그렇잖아도 옛 고기와 자라 거북들을 채취하고라도 수많은 수중 중생이 살고 있었지."

"...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 이 대

바다 속에서 모든 물의 깊이를 들고 솟아오를만큼 사나운 소리였다.

"용궁이라는 곳도 중생놀음이란 말이군"이라고 우너는 쓴 꼴을 끌어먹은 것처럼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눈을 저그시 감았다. 눈을 감은 뒤 점점 그의 머리 속에 아주 찬찬히 그 음파를 드러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엄청난 초대형의 도성이었다. 8만킬로의 바다 밑 도성이었다. 수심(水深) 18만킬로나 되는 바다였는데 도성은 암굴과 암굴의 상층으로 세워졌고 그 안은 궁궐과 궁궐 그리고 산호의 찬란한 숲도 이루어져 있었다.

도성 전체가 일곱가지 보배인 금은 파우로 장식되어 있어서 마치 천상계의 궁전을 방불케 하고 있었다.

"아하!"

"아아! 용궁다운 용궁이로다."

그 고대중국 6조시대의 시인 도연명이 그렇게도 그리워한 바 있던 줄 없는 글이군 그것이기도 하다.

우너는 그런 아수라군 무당군에도 맞추는 듯이 흥분흥분 노래가 나오는 것이었다.

어찌 바다 밑 아수라 뿐이라 어찌 바다 밑 아수라 뿐이라 이 인간세상이야 이 바다를 아수라보다 더 아수라였고 더 아수라이고 더 아수라이고 더 아수라이고 그러다가 아수라군 그 아름다운 소리로 끝내 아수라의 싸움 그치지 않고 아수라군 빛나리

그림·조향숙

법화경연구

법화경의 핵심품인 방편품의 일승사상을 중심으로 법화경을 고찰한다!

대승불교의 원성, 법화경의 핵심사상을 규명

점예한 대승주의 대입으로 불교교법이 상실될 위기에, 이 양자를 화합시켜야 하는 노력의 결과물이 법화경 방편품이다. 그리고 그 핵심사상이 바로 일승이란 대명제였다. 일승사상의 규명을 통해 우리는 '경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운주시 흥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中國淨土教理史

중국의 정토사상을 시대별·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중국정토교의 변화·발전·쇠퇴의 모습을 한눈에!

염불·사경·불상조성 등 타력(他力)신앙으로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기원한 사람들의 발자취

정토의 교리는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에게 적합한 수행법이다. 이 책은 중국 후한시대 정토사상이 도입되면서부터 정나라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로 정토교의 변천과 발전 그리고 쇠퇴 동을 개관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대의 정토수행자들의 사상과 실천수행의 모습을 생생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운주시 흥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절대의 행복·죽음으로 부터의 자유!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죽음이라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과연 의연할 수 있는가? 웃으며 죽음을 맞이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인생은 대만족, 지금 죽어도 후회는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이미티블의 본질에 의해 누구나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



운주시 흥로구 청진동 6 전화:720-9372.3 팩스:723-0646